

어린이 책꽂이



▲복싱이네 가족사진=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노경실씨의 장편동화. 5남매 중 외아들인 막내 동생 훈이만 눈에 띄게 편애하는 엄마에게 항상 불만이 많은 만발 복싱이의 이야기다. 딸이라고 돌잔치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훈이의 돌이 되자 엄마가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서자 복싱이는 이를 악문다. <어린이작가정신·9000원>



▲불랑 아빠 만세=불랑 아빠 중의 하나인 싱글 대디 이야기이다. 찬우네 아빠는 싱글 대디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학교 급식 도우미, 준비물 챙겨주기 등 엄마의 역할까지 열심히 해낸다. 친구들의 아빠와 다른 아빠 때문에 참피했던 찬우도 뒤늦게 이런 아빠의 사랑을 깨닫는다. <시공주니어·9000원>



▲어린이를 위한 책임감=어린이 자기계발동화의 21번째 이야기. 공자가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상두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한다. 과제를 꼬박꼬박 하고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것 등 '책임감을 길러주는 실천 팀'도 함께 실었다. <위즈덤하우스·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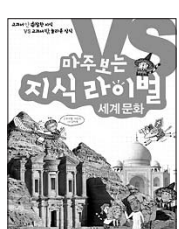
▲재미있다 우리말-부엉이 공간에 우리말 잔치 열렸네=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말의 어원과 그 쓰임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우리말 동화 시리즈 1권. 새·물고기·동물·곤충·식물에서 나온 우리말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말의 쓰임새와 어원에 대해 서서히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웅진주니어·9000원>



▲못난이 양지꽃=골목색의 유혹에 넘어가 싸리나무 울타리 아래로 이사를 가게 된 양지꽃 아가씨. 하지만 촘촘한 싸리나무 가지 사이로는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양지꽃 아가씨의 꽃잎과 이파리들이 시들시들해 간다. 양지꽃 아가씨의 달콤하지만 위험한 여행을 통해 '나만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가교출판·1만원>



▲전기 타임캡슐=세상을 바꾼 전기의 비밀을 찾아서=호박의 마찰전기에서부터 연료전지까지, 전기의 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기의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번개 치는 날 연을 날린 과학자, 술한 개구리를 죽음으로 내문 전기 충격 실험 등 놀라고도 짜릿한 전기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나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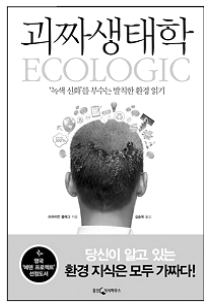
▲마주보는 지식 라이벌-세계문화:교과서 안 기발한 지식 vs 교과서 밖 놀라운 상식=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중에서 독특하다 못해 엉뚱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문화들 각 나라의 환경에 맞게 설명했다. 유럽에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하고, 식사비에는 자동으로 물값도 포함되는 등을 소개한다. <글고온·9300원>

▲날아가는 집=프랑스 작가 클로드 루아가 들려주는 어린이들의 환상적이고 별난 모험의 세계. 여름방학을 맞은 네 아이가 등나무집에서 물건들을 뜯고 떼어내며 괴롭히자 화가 난 물건들은 시간을 잘 못 알려주고, 겨울에 얼굴을 비추면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등 항의를 시작한다. <해와나무·9000원>

유기농 식품은 정말 우리몸에 좋은 것인가

괴짜생태학

브라이언 클레그 지음



‘괴짜생태학’ ‘슈퍼괴짜 경제학’ ‘괴짜 사회학’ 등 세계적으로 ‘괴짜’ 신드롬을 일으킨 저작들이 이어 또 하나의 ‘괴짜’류 신간이 나왔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룬 ‘괴짜생태학-녹색 신화’를 부수는 발칙한 환경 읽기이다.

저자부터 범상치 않다. 현대인에게 ‘생태논리’(Ecologic)를 권하는 저자 브라이언 클레그는 물리학을 전공한 자연과학자로 브리티시에어리언에서 인간의 행동을 수학적으로 설계하는 작전 연구(operational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영국 재무부, BBC,

소니사 등 유수의 기업과 기관에서 창의력 컨설팅을 해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환경 문제를 다룬 인문학 서적임에도 책의 서두는 엉뚱하게 독일 뮌헨에서 실제 있었던 비행기 이륙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행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제대로 뜨지 않아서, 활주로 끝에 부딪쳐 사고 나기 직전에 겨우 이륙시켰다는 사건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뮌헨에서 열린 동전 수집가 축제 때문이었다는 것. 승객인 동전 수집가들이 가지고 탄 수많은 동전을 때문에 비행기 중량이 초과된 것을 미처 계산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행기의 중량 계산이라는 수학적 자료와 승객들의 행동특성(자기 수집품을 직접 가지고 가려는)이라는 인간적 경험을 모두 반영해야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 저자는 환경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

어디까지나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빙산이 녹아서 귀여운 북극곰이 위협합니다” “밭에서 뽑아온 그대로, 흙이 묻은 유기농 채소를 드세요”처럼 쉽게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환경 문제들의 실체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기업이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가’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또 우리가 남기는 탄소 발자국이 정말 심각한 수준일까?, 유기농 식품은 몸에 좋을까?, 공장무역은 정말 공정한가? 등 우리가 흔히 들어왔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를 짚어보고 그 속에 숨은 의미와 배경을 읽어내,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진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환경을 다룰 바에는 차라리 맥도날드에게 환경 문제를 맡기라는 ‘발칙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분명히 정리된 메뉴를 제공하고, 현지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잔돈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등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움직이는 기업 맥도



‘유기농이라고 모두 좋은가?’ 저자는 감정에 치우친 ‘녹색 신화’에 현혹되지 말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널드처럼 그렇게 환경 운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알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합리적인 경제 논리’로 시작해야 오히려 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제 막연하고 감상적인 지구 사람은 머리에서 떨어버리고, 제대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만큼 친환경적일까?” 진짜 그린라이프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옛들은 깨달음과 삶의 아름다움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윤대녕 지음



등단 20주년을 맞은 소설가 윤대녕(48) 씨가 신작 산문집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을 출간했다. 2006년 나온 맛기행 산문 ‘어머니의 수지’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3월 출간된 소설집 ‘대설주의보’가 이제는 ‘일상과 현실’로 향하는 작가의 시선 이동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산문집 역시 그러한 변화를 책 곳곳에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맞닿아 있다.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작가는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일상을 대하며 세심스럽게 느끼는 깨달음과 삶의 아름다움을 담담한 문체로 전한다.

총 5부 가운데 앞선 1~3부에서는 점차 나이가 들며 따라 세상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느끼는 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세상 깨닫게 된 일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4부에서는 소설가를 꿈꾸던 고교 시절의 이야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낙선을 경험한 후 마침내 문단에 들어서기까지의 일 등 작가 윤대녕의 ‘문학하는 삶’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5부는 ‘윤대녕의 독서일기’로 꾸며졌다. 책을 읽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과 세계의 비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작가가 그동안 살뜰하게 읽어온 책 가운데 스톨 아홉 권을 선별해 소개했다. <푸르메·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국지의 허와 실을 밝히다

삼국지 교양강의

리동광 지음



1930년대부터 베이징대, 칭화대에서 역사와 철학을 강의했고 은퇴한 뒤 미국에서 중국사 집필에 힘썼던 중국 역사가 리동광(1907~1998년)의 ‘삼국지 교양강의’는 색다른 ‘삼국지’ 해설서다. 종일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부터 그가 충칭, 난징, 쿤밍 등 중국 전역에서 진행했던 강연에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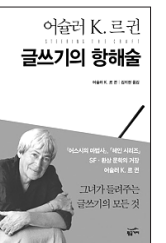
책은 중국 정통 역사학자가 역사 사실에 기초해 고전 ‘삼국지’를 해설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사실에 기초한 만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눈에 띈다.

적벽대전에서 불타 장소는 실은 적벽이 아니었다. 적벽대전이 시작된 장소는 장강 북쪽 기슭인데 이곳의 지명은 오립이었고 적벽은 남쪽 기슭의 이름이었다는 것, 조조 진영에 머물던 관우가 원소 진영의 유비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오립을 통과하고 여섯 명의 장수를 참수했다는 일화 역시 조조가 관우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라고 명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동풍을 빌렸다는 것은 허구이며 강물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화공이 가능했다는 점, 장비가 무퇴환이 아니라 서화에 능한 문사였다는 점 등도 밝히고 있다. 총 38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장은 삼국 시대의 제도, 학술, 문학,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를 간략하게 거론했다. <돌베개·2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장 달인의 글 잘 쓰는 테크닉

글쓰기의 항해술

어슬러 르겐 지음



“글쓰기란 처음도 마지막도 예술이고, 기술이며, 제작이다. 무언가를 잘 만드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일이고, 온전한 정신을 찾는 일이고, 영혼을 따르는 일이다. 무언가를 잘 만드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당신의 일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다.”(11~12쪽)

‘어슬러의 마법사’ ‘헤인 시리즈’ 등 SF·환상 문학의 거장 어슬러 르겐가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비결을 적은 ‘글쓰기의 항해술’이 출간됐다. 50년간 수백여 편의 소설과 산문, 시, 평론서 등을 집필해 온 작가의 글쓰기 노하우가 집대성된 책이다.

버지니아 울프, 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스 등 유명 작가들의 글을 예시문 삼아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글쓰기 테크닉을 가르쳐준다.

글의 소리와 리듬부터 구두법, 문장 길이와 복잡문, 형용사와 부사, 시점, 간접화법 등을 다루고 문학 창작 워크숍에서 여러 작가들에게 제안받아 만들어 낸 다양한 연습 문제를 담고 있다.

여기에 각 단락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따로 추천하고, 여럿이 함께 모여 글을 쓰는 방법인 ‘합평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문학 창작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좋은 글쓰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교재로 권할만하다. <황금가지·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ya) restauran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restaurant interior with tables and chairs. Text includes: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Healthy taste, high-quality menu, dignified service),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From children to adults, 3 generations satisfied with instant premium buffet "Aielisya", promising precious memories and delicious happiness for our customers). A table with pricing information: LUNCH 11:30-15:00 (22,000-27,000), DINNER 16:00-22:00 (27,000-31,000). Includes a list of services like '출' (Party), '소모임(룸)', and '대모임(룸)'. At the bottom, contact info: '예약문의 0621671-1199' and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